불교, 신분·계급 차별의 '恨' 보듬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② 가슴 답답한 서얼 보듬은 문수사

불교의 문수보살

불교에서 문수보살은 부처님을 보좌하는 상수보살이다. 대승불교 이후 궁극적 목표가 중생의 지혜 증득에 있음을 시사하면서 등장하였다. 손에 쥐고 있는 이검(利劍)은 지혜를 상징한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찾는 선지식이다.

인도의 문수보살 신앙을 보면 다섯 봉우리의 산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며 그 명호를 지성칭념하면 그 공덕이 수승하다고 전해진다. 이런 믿음이 티베트, 중앙아시아로 전해져 많은 영험사례를 만들어 냈다. 이어 중국으로 전해진 문수신앙은 동진(東晋) 이후 점점 발전하면서 당나라 때 절정을 이르렀다. 그런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문수신앙은 신라의 자장이 중국 청량산에서 문수대성을 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원도 오대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삼국시대부터 형성된 한국의 문수보살 신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부처님과 인연이 깊다고 하는 불연국토사상이다. 불교를 인도와 중국을 통해 받아들였지만 독자적인 신앙체계를 이루었다는 자신감이다. 다음 노인과 동자의 현신(現身)을 통한 어리석음의 타파이다. 마지막으로 중생의 재난을 멈추게 하는 현세구복적 신앙관이다. 문수의 지혜를 빌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앙관이다. 이런 신앙관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문수보살은 중생의 의지처가 될 수 있었다.

북한산 문수사인가? 삼각산 문수사인가?

북한산이 맞나? 아니면 삼각산이 맞나? 산을 오르다보면 이름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삼각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산이란 명칭은 일제시대 이곳에 있던 북한산성을 따서 북한산이라 부르게 된 것이므로 원래 명칭인 삼각산으로 부르자고 주장한다.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바뀐 것이라면 고쳐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물리친 후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곳을 북한산주로 하였다. 150여 년을 이어온 동맹 체제를 깨고 차지할 만큼 전략적 요충지였다. 중국과의 교통로를 얻은 신라는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삼국을 통일하였으니 진흥왕의 선견이 놀랍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북한산이란 명칭은 일제의 잔재로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다.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이다. 신라 때는 부아악(負兒岳)이라 하였다. 한때 화산(華山)으로도 불렸다. 잇닿은 산봉우리가 높고 낮아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가 이곳에 올라 이제 살 만한 땅을 찾았다고 했을 만큼 좋은 곳이다.

북한산의 주봉은 백운대이다. 옆의 인수봉과 만경대가 삼각을 이루는 까닭에 삼각산이라 부른다. 고려시대 문인들의 시에 삼각산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그리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의 산세는 북쪽 끝 백운대에서 남쪽으로 문수봉과 보현봉에 이르고 있다. 능선이 길고도 아름다워 일찍부터 비경과 사찰을 읊은 시가 많다. 불교와의 인연이 깊은 탓에 봉우리마다 불교에서 따온 이름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문수봉 밑에 있는 문수사는 서울의 사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예종 4년(1109) 대감국사 탄연(坦然)이 창건했다. 이곳을 노래한 탄연의 시가 동문선에 전해지고 있다.

"한 칸 방 어찌 그리 너무도 고요한가,
일만 인연 모두 적막하네.
길은 돌 틈으로 뚫고 가고,
샘은 구름 속에서 새어나네.
밝은 달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산들바람 숲 속에서 일어나네.
누가 저 스님(上人)따라,
고요히 앉아 참 즐거움 배우려나."

지혜 증득의 상징 '문수보살'
한국 불국토 사상과 맞닿아
서얼 등 신분차별자들 의지처

달 밝은 밤 작은 암자 문수사의 고요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지혜를 안고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봉을 바라보고 앉은 문수사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 겪어온 전쟁과 화마 탓에 사격이 제대로 전해지지는 않아 아쉽다.

문수사를 찾은 고려의 문인

고려시대 서울은 남경(南京)으로 불렸다. 매우 중요시 여겨 숙종 때 천도할 계획도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중요한 곳이었지만 한창 일할 때 개경을 떠나 이곳을 온다는 것은 벼슬에서 물러나 허탈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고려 시대 이장용(李藏用)이 이곳을 찾았다. 대표적인 문벌귀족인 이자연(李子淵)의 6대손이다. 신종 4년(1201) 태어나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문수사를 창건한 탄연이 이자연에게 선을 배웠을 정도로 불심이 깊은 집안이었다. 그런 집안의 후손인 이장용 역시 불심이 깊었다.

원종 10년(1269)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하자 원나라에 가서 원종을 복위시키고 돌아왔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왕이 폐립될 때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이듬해 파면 당했을 때이다. 세상을 유랑할 때 북한산 문수사를 들렀다. 고요한 적막 속에 있는 사찰을 보니 인생사 무상함이 복받쳤다.

"벼슬길 그만두려 하나 어리석어 어찌 하리, 좋은 일 가시기 쉬우니 더구나 애석하도다"는 표현과 "인생들 무어라 허덕이나. 쉽사리 의관 벗지 못함은"이란 표현으로 자신의 신세를 달랬다.

그는 자연과 어우러진 문수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돌층계가 들쭉날쭉 90층이 되는 문수사의 전경은 기이하여 세상엔 없는 청련궁(靑蓮宮)이며 크게 슬기로운 진인(眞人)의 집이다. 문수보살을 모신 석굴은 돌이끼 아롱지고, 수풀 속의 감실로 단청이 눈부시다."

예나 지금이나 문수사는 오르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리고 석굴 앞에 있는 전각을 법계로 들어가는 입구라 하였다. 세속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저편으로 건너가 쉬고 싶은 그의 심정이 드러난다.



북한산에 위치한 문수사의 문수동굴 모습. 수많은 조선시대 서얼들이 이 동굴을 찾아 차별로 인한 설움을 녹여냈다.

서얼출신 관리들의 의지처 문수사

조선시대 문수사는 수도 한양과 가까운 탓에 많은 문인들의 방문이 있었다. 언제 누가 왔다 갔을까? 조선시대는 배불의 시대이다. 도성의 사찰을 쫓아내고 사대부들의 사찰 출입을 금지할 때 산을 찾고 절을 찾았다면 그만큼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조선 중기 최립(崔岦;1539~1612)은 과거에서 장원급제하는 등 실력이 좋았다. 벼슬길도 평탄한 편이었다. 그러나 서얼 출신이었다. 조선시대 서얼 출신이 관직에 나간 것은 행운이었다. 행운이 많으면 비난도 많아지는 법이다. 벼슬이 올라갈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와 같았다. 벼슬길에 나아가 입신양명을 이루었지만 세속의 눈은 차디찼다. 가슴속에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 한을 달래주어야 했다. 장마철 진흙탕 같은 벼슬생활을 벗어나 자연을 벗할 수 있는 곳은 북한산뿐이었다. 자신의 문집인 〈간이집(簡易集)〉에 문수사를 노래한 시에 그런 심정이 묻어난다.

"문수사 길 이미 십년 전이라 흐릿한데, 꿈속에서 북쪽 성곽 서쪽을 찾는다오. 지팡이 짚고 서면 골짜기에 구름이 가득하고, 문을 열면 봉우리 위에 달이 떴겠지. 돌구멍에 새벽 물소리 경쇠소리 같고, 등잔 심지 돋울 때 솔바람에 사슴이 울었네. 이 경지를 스님과 함께 언제 다시 가져볼까, 벼슬길은 칠월 진흙탕처럼 질퍽한데."

조선 후기 서얼 출신으로 관직에 나간 북학파의 박제가(朴齊家;1750~1805)와 이덕무(李德懋;1741~1793) 역시 문수사에 올랐다. 그들은 정조의 총애를 받아 세간의 부러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 총애가 깊어질수록 미워하는 시선도 늘었다. 말 못할 한이 가슴에 쌓였고 그때마다 북한산에 올랐다. 박제가는 '북한산 문수사' 라는 시에서 차별 없는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데서 문득 성문이 보이고, 새들 다니는 길을 돌아 모두 더위잡고 올랐다. 해 지자 현도국에서 안개 피어나는 것 같고, 가을바람에 나그네는 철위산 속에 있는 듯하구나. 형상은 엎어 놓은 독 같이 세 봉우리는 갈라지고, 옥구슬 부딪치는 듯한 한 구비 물로 에워쌓네. 막 절문에 이르러 급히 그림자를 돌아보니, 단풍 속에 든지라 옷과 소매가 빨갛구나."

이덕무는 〈기유북한(記遊北漢)〉을 남겼다. 21세 때 친구들과 북한산 사암 11곳을 다니며 느낀 감회의 글이다. 문수사를 참배한 그는 "석굴을 따라 들어가니 물방울이 비오듯 옷을 적신다"고 적었다. 그리고 불상 좌우에는 500나한을 모셨으며, 이곳을 문수사 또는 보현사라 부른다고 했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잊은 이승만

문수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도 인연이 깊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기도한 이후 그를 낳았다.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은 것일까?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힘든 여정에서도 학업을 계속하여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보다 이 박사로 불렀다.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은 큰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광복 후 먹을 것 하나 변변하지 못했던 경제상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더욱 어려워진 국가를 이끈 것도 대단한 지혜이다. 문맹률이 높아 이해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게 하는 것은 웬만한 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승만은 1956년 82세에 이곳에 올랐다. 기독교를 믿었지만 자신의 탄생과 관련 있는 곳이기에 지나칠 수 없었나 보다. 문수사 오르는 사진과 대웅전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3대 대통령에 당선된 무렵으로 보인다. 이때라도 문수보살의 가피로 재선으로 만족하고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지혜를 얻었더라면…. 건국의 아버지란 평가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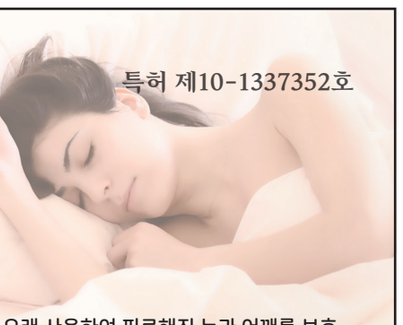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224
전화 031)532-3722, 031)533-3722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